

떡볶이 수다

어설픔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여성주의자로 불리기 싫었던 어느 졸업생의 고백록
7만원 여행기 7일간의 남도여행



interview

Jade Kilburn 최.금.옥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너의 방학은 어땠니

이달의 이야기

Asia travel / 피아노 배우기 / 나의 방학보내기

여성주의로 영화읽기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피해자의 주장을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이갈의 칼럼

남자들의 수다
군대에서 살아남기

9 2002. September

떡볶이 수다 September 9, 2002

contents

2	a letter from the editor	
4	어덜의 이야기 너의 방학은 어땠니	
	2-1 Asia Travel	_이송규호(사회학과 00)
	2-2 피아노 배우기	_이진영(국문학과 00)
	2-3 나의 방학 보내기[1]	_마니
14	interview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 제이드 킬번(Tea Museum사장)편	
22	여성주의로 영미읽기 헤드워크와 앵그리인치	_이갈(사회과학계열99)
26	[광고] 제 5회 가을 여성제	
27	낯선 곳에서 도쿄, 5개월, 그 어느 날의 나 _이종숙(경영학과 00 현재 일본 아오야마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중)	
30	여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여성주의자로 불리기 싫었던 어느 졸업생의 고백록 _전주영(신문방송학과 졸업자)	
35	7만원 여행기 7일간의 남도여행	_꼭지 / 노래 / 샘
40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피해자의 주장을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거지? _다대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42	남자들의 수다 군대에서 살아남기	_똥(인문학부98)
44	[광고]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45	어갈의 칼럼 우리보다 더 좋은 말	_김이정민(사회과학계열99)
48	[광고] 당연지똥	



a letter from the editor

방학 잘 보내셨어요?

2학기에도 떡볶이수다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호는 '너의 방학은 어땠니?' 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방학은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평소에도 벗어나 있는 분들이 꽤 되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서 출발해 봅니다.

단절된 시간을 보냈지만, 안으로는 서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갑자기 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사람들 사이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틀렸을 수도...)

떡볶이수다를 보고 나서, 서로 각자의 방학은 어땠는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이 달의 새 코너로 '남자들의 수다'가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글인 '뚝의 군대 이야기'는 남성들만의 경험인 군대 이야기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풀어 본 것입니다.

한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로운 때이지만,

점점 맑아지는 날씨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떡수가 여러분의 기분전환제이길 빌며...

Asia travel
피아노 배우기
나의 방학 보내기

너의 방학은 어땠니?

이달의 이야기 ①

Asia travel

— 아송규호 (사회학과 00)

Asia... 나는 아시아에 살고 있고, 아시아인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아시아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게 아시아는 어떤 공간일까?

대한민국에서 한발자국이라도 걸어 나가면 지긋지긋한 오리엔탈리스트들을 만나게 된다.

여행을 하면서 가끔씩 가슴 아픈 것들...

아시아에서 섹스는 프리,라고 외치던 어떤 북유럽인, 입만 떼면 동양 여자가 어찌고 저찌구를 떠들어대던 영국인, 퇴직하고 태국의 섬에서 젊은 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다며 아시아는 낙원이라고 떠드는 노르웨이인, 농카이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침대칸에 기껏해야 15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타는 어

떤 서양인...

그들에게 아시아는 낙원인데, 나에게 아시아는 그렇지 않은 않다.

이번 방학에는 유난히도 많이 돌아다닌 것 같다.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일본의 대안 교육 현장을 보러 며칠간 다녀왔었다.

이방인이 본 도쿄는 너무도 우울한 도시였다. 너무도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

하나같이 개성적으로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기만 하는 youth들은 직장인이 되면 모두 검정색 양복과 같은 머리를 한다. 단순히 경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 말을 빌리면 이제 일본에는 무너질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란다... 학교를 버티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세상을 거부하는 도지코모리는 점점 심해지고, 가족은 정말 이제 전쟁의 파편만 남은 것 같고...

우울한 도시에서 탈출하고 싶은 아이들은 나라 사랑이 미친 짓이라 이야기한다.

계절학기를 나른하게 보낸 후, 중국 상하이에 참가할 것이 있어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아시아 여행을 조금 더 하기로 하였다. 첫번째 목적지는 태일랜드의 방콕. 8월 14일에 도착한 돈무앙 공항은 습기와 뜨거운 열기로 숨조차 쉬기 곤란할 정도였다. 택시를 타고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천국이라는 카오산으로 향한다. 마지막 남은 히피의 천국이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youth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카오산은 방콕에서 뚝 떨어진 공간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남은 게스트 하우스에서 밤새 잠을 설치던



기억... 여왕의 생일을 맞아 길거리 곳곳에 꽃과 여왕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모습...

월텍이라고 불리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향했다. Asia Books라는 서점이 인상적이다. 처음부터 여행을 떠나면서 이번 여행을 kyo's asia travel이라고 지었는데, 웬지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니 곳곳에 지점도 있고, 자체 제작한 책도 있는 것을 보니 asia 관련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곳인 것 같다. 물론 모두 영어로 된 책들이다. 아시아의 예술이라는 책부터 시작해 아시아 각국의 요리 소개, 여행 가이드북을 비롯하여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을 꽤 갖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느낀 것은 타이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한-중-일이 아시아의 전부처럼 취급되는데, 이곳에는 아시아는 타이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라는 인상을 남긴다. 친구의 말이 기억난다. '인도가 그 동네에서 짱 먹드라'. 역시 이 동네 짱은 타이가 먹고 있는 것일까?

책을 두어권 산다. 아시

아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책이다. Sex Slaves라는 책이었는데, 가난과 가부장적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성매매 산업 속에서 성노예가 되어버린 현장을 보고하는 책이었다. 성매매의 구조와 아시아 국가간 성매매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며 그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서양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책이다. 자극적인 겉표지 때문인지, 돈무앙 공항의 면세점에서 1위 도서로 등극이 되어 있었다. 그다지 대중적인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communication with asia이다. 호주 작가가 쓴 책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묶이고 있지만 너무도 이질적인 아시아라는 공간을 좀더 친숙하고, 소통을 해보자는 의도로 씌여진 책이다. 우연인지 몰라도 지난 학기 내가 써 냈던 보고서와 목차가 일치한다. 그가 그려내는 아시아는 어떤 공간일까?

라오스로 향했다.

방콕에서 농카이까지 기차를 타고 농카에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으로 갔다.

수도답지 않은 모습의 수도. 고층 건물도 없고 농사도 짓고, 어렸을 적 내가 살던 시골보다 오히려 더 시골



스럽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광고, 드문드문 눈에 띄는 피씨방... 글로벌은 이곳 라오스에도 다가오고 있다. 시내 중심은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다. 호텔들과 스칸디나비아 빵집, 인터넷 카페, 프랑스 요리 전문점... 비엔티엔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인 국민 문화 센터에 들렀다. 매마침 무슨 공연이 있는 것 같아 직원에게 물었더니 'rock concert'가 있다고 한다. 기대되어 표를 끊고 자리에 앉는다.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지루박을 땡기고 차차차를 당기는 모습에 나는 웃고 말았다. 락 콘서트가 저런 것이구나!

다시 타이로 돌아와 코팡간으로 향했다. 남동부의 작은 섬... 개발되지 얼마 안되었고,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full moon party가 있는 곳. 밤이면 사람들이 나와 바닷가 모래사장에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밤

새도록 미친듯이 파티를 하는 그곳.

모든 것은 영어로 되어 있고, 이 멀리 떨어진 섬에도 인터넷이 들어와 있다. 동양사람은 상점 주인인 타이 사람 몇명, 일본인 몇명.... 타이에 있지만 타이가 아닌,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섬에 온 것 같았던 그곳...

중국의 상하이로 향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next generation들의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었다. asia youth culture networking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생각들... 무선랜이 되고,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메일 도착 알람 소리는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게 들리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여 동시에 3국에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고...

asia라는 공간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한중일이 먼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이 다른 아시아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에, 학회의 senior는 그것 서

양이 해왔던 것이다. 자기들이 먼저 하고 그 후에 아시아로 확장하자... 너희들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뼈아픈 충고를 해주었다. 그 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정신없는 상해에서의 10일을 보내고 나는 지금 방콕의 카오산 로드의 한 피씨방에 있다.

아직 내 아시아 여행은 1주일 정도 남았고, 내가 이번 여행에서 보고 느끼게 될 아시아는 어떤 공간이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좀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는 아시아가 좀더 편한 공간이고, 편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아시아 youth들을 너무도 만나고 싶고 이야기 하고 싶다는 것.

나의 방학은 그렇게 아시아와 함께 가고 있다. ♣



이달의 이야기 ②

피아노 배우기

이진영 (국문학과 00)

지난 8월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한 달쯤, '난 피아노 학원을 다녀'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대부분은 의아해하곤 한다. 영어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가강좌도 아닌, 피아노를 배우는 게 아마 뜻밖의 일인 모양이다.(얼마나 뜻밖이었으면 글까지 써보라고 했을까...)

어머니는 내가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사실 먼저 학원에 등록을 하고나서 말씀드렸다.) 그다지 놀라지 않으셨다. 그건 내가 예전부터 가끔씩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가, 사고 싶다는 얘길 했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요즘도 그런 것 같지만,) 어린 여자애들은 대부분 피아노를 배웠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는데, 한창 배움에 빠져있을 무렵(?),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일이 마음에 걸리셨던지, 내가 다시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때 못 시켜줬으니, 지금이라도 시켜주마' 하시며 학원비를 내주셨다.

그렇다고 내가 어릴 적 못 푼 배움의 한(?) 때문에, 방학 때 피아노를 다시 시작한 건 아니다. 그것도 3학년 2학기가 시작하기 전의 방학에 말이다.

내 방학은 제주도 여행으로 시작됐다. 친구와 둘이서 일주일간 떠난 여행은 우리 두 사람이 스스로에게 준 일종의 선물 같은 거였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제주도는 충분히 아름다웠고, 편안한 휴식을 베풀었다.

그 여행 뒤로 한 달간 뭘 했는지 나

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달부터는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뭘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 나이에, 또 나처럼 우유부단하고,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자니 매일 놀고 술만 마시고, 늦잠을 자게 되는 게 싫었다.

아니, 되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다.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다. 나는 소설가도 되고 싶고, 영화감독, PD, 기자... 하지만 지금 뭘 해야 하는가는 알지 못한다. 영어 시험을 봐줘야 하는지, 상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건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지, 아니면 줄을 잘 대야 하는 건지...

누군가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한다면 난 수긍할 것이다. 난 원래 그런 인간이다. 그런데도 잘 안 된다. 니가 세상물정



모르는 거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다. 난 세상 물정을 모른다.

피아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다. 무엇이든 시작하고 싶었지만, 어느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난 경쟁력을 상실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내가 해야 했던 일들이 나를 잘 팔리게 만들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걸 늦게 깨달았던 것 같다. 그 모습이 싫어서 아마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겨우 나 자신에 대한 반항이지만.

피아노는 적어도 2년 이상은 꾸준히 쳐야 실력이 는다고 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꾸준한 발전이다. 앞이 보인다.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적어도 피아노만큼은 멋지게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본 '판타스틱 소녀백서'라는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다. '이니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소녀이다.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싫어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졸업하고 같이 독립하기로 한 단짝친구와도 더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게 돼버린다. 그 동네에는 노선이 폐쇄된 버



스정류장이 한 곳 있었는데, 더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한 할아버지는 항상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있다. 어느날 소녀는 자신이 좋아하던 한 아저씨와 잠을 자게 되지만, 좋아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길을 지나다 그 할아버지를 보게 되고, 이렇게 말한다. '할아버지, 전 믿을 사람이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모두 불확실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여기 있을 거란 건 알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넌 모르고 있어. 난 떠날꺼야.' 마지막에 마침내 버스는 오고, 빈 버스에 할아버지만을 태우고 버스는 출발한다.

영화는 무척 재미없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이니드'가 나와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녀는 언젠가 어른이 될 것이다. 지금 소녀의 삶은 지루하고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그 삶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다니는 학원은 좀 특이하다. 피아노 학원은 동네마다 꽤 많지만, 이런 분위기의 학원은 얼마 안 될 거란 느낌이 든다. 일본 영화에서 나오는 오래된 건물 같다고 할까. 그냥 똑같이 생긴 상가 안의 학원들과는 뭔가 다르다. 처음에 이 곳에 가게 된 것도, 건물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병원에서조차 느껴봤다. 요즘은 구식 병원을 다 개조해서, 병원 안이 깨끗하고, 안락한 느낌을 준다. 유리로 칸막이를 만들고, 벽은 깨끗한 흰색이며, 간호사들이 있는 데스크는 뭔가를 파는 곳이란 느낌이 든다. 옛날 병원은 좀 달랐던 것 같다. 벽은 나무로 되어 있고, 방 중간에는 석유난로가 있어서 그 위에 주전자가 올려져있는 느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건가.

'낭만은 사회적 무능력의 세속화된 형태'라는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정확했다. 나는 내 방학에 대해 썼어야 했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늘어놓아 버렸다. 그리고 마무리도 못 짓겠다. 내 방학은 끝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좀 더 올바르게 살아보겠다던지 하는 결심도 서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방학 보내기

마니 (사회과학계열99)

이번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덜 더웠던 것 같다. 종종 해가 뽕뽕 내리쬘서 매우 더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한참 더울만하면 찾아온 비와 태풍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더위 없이 지나간 듯 하다. 이번 여름의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오락가락한 날씨보다도 더 정신없었던 날들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이번 여름 방학이 나에게 대학생활의 마지막 방학이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을 하게 되니, 겨울 방학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새삼 마지막 방학도 지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기분이다.

지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여름 방학에 대한 무수한 생각들이 나를 뒤덮고 있었다. 마지막이라는 것

은 생각보다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 언제보다도 알찬 방학을 보내야 한다는 신념 같은 것이 마구마구 생겨났고, 결국 정말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말았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거 아닌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계획을 전부 모아놓고 보면 나의 역량으로는 그닥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양이었던 거다.

7월에는 오전에 계절학기를 두 과목 듣는다. 오후에는 실습-학과 특성상 실습을 나가야 한다-을 나간다. 그리고 틈틈이 착실히 영어공부를 하며 바쁘고 짝세고 보람찬 나날을 보낸다. 그리고 8월이 되면, 중순까지 실습을 하루종일 나간다.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방학을 화려

히 장식하기 위해 8월말에 멋지구리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나의 화려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닦쳐봐야 알게 된다. 계절학기 한 과목을 듣는 것도 게으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학교를 세 학기정도 다니면서 본 1교시의 쓴맛에, 1년 넘게 1교시는 물론 2교시 수업도 거의 듣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그것도 방학 때, 9시까지 학교를 올 생각을 했었던 건지. 다행히도 수강변경 기간에 과목을 하나만 신청한 자신의 판단에 안도의 한숨을 쉬어가며 겨우겨우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실습을 나갔다. 1시에 수업이 끝나는 날은 김밥 한줄을 입안에 꾸역꾸역 넣고는 더운 길가로 버스를 타러 나가곤 했다. 제대로 된 휴가도 없었다. 낯선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실습을 한다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가족들과 일정이 엇갈려 다녀온 외가댁은 잠만 자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이런 굴곡진 일정들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지냈는데, 틈틈이 하려던 공부가 잘 되었겠는가. 함께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의 수첩에는 나의 과제물 벌금 액수가 나날이 늘어

나 있었다. 마지막을 장식했어야 할 화려한 여행은, 개학이 가까워지면서 밀려든 일들과 방학동안 쌓아둔 많은 것들을 처리하느라 결국 "안녕~~"하고 멀리멀리 날아가 버렸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방학이 끝난 후에, 과연 내가 방학을 알차게 보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얻은 것도 없지만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은 성과물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계절학기로 학점을 따 졸업 학점을 조금 보충했다. 정신도 좀 없고 어리버리 했지만 실습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내 미래에 대해 더 생각해볼 계기가 된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영어 공부는 결국 시작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었고- 시작이 반이라 했지, 아- 결국 여행은 못 갔지만 그 덕에 남아있는 은행 잔고가 마음을 조금 위로해준다.

어떻게 보낸 것이 방학을 의미있게 보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번 방학이 여행을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던 다른 때보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힘이 길러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유쾌한 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

유쾌한Girl이 만나 본 네 번째 신나는女子_

Tea Museum Ceo Jade Kilburn Jade Kilburn

최금옥 강남구 신사동 Tea Museum 사장

하루 한잔 마시는 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네, Tea Museum입니다. 아, 여기 주소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 유쾌한GIRL이 이번 달에 만나 본 신나는 女子, Jade kilburn(최금옥) 씨의 차 박물관이 자리 잡은 곳은 이름만 들어도 웬지 시끄러운 강남구 신사동의 어느 한 대로변이었다. 어느 나이든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온통 기름기가 줄줄 흐른다는, 어떤 사진이 많은 잡지에 의하면, 패션 리더들의 집결지라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시끄럽고 분주함, 복잡하며 정신 없음, 돈이 드는 화려함, 동시에 싸구려 인스턴트,... 그 동네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강남이라는 지명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상할 법한 이미지들은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한 이미지들이

실재의 것이든 가공의 것이든 간에, 강남이라는 공간이 그런 이미지들로 주로 설명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공간 가운데에 있는 그녀의 차 박물관은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약간의 낯설음을 안겨 주고 있는 듯 했다. 그야말로 그 '이상한' 낯설음은 차 박물관과 다른 무엇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표정 때문인 것 같았다. 꾸지람하고 싶은 마음을 우선은 감추고, 무언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듯한, 그 엄숙하기까지 한 가게의 표정은, 때로는 거짓된 싸구려 친절에 익숙할 행인들로 하여금 낯설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때 만해도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미 25년 간 외국에서 생활했다는 Jade kilburn 씨, 이야기는 그녀가 처음으로 이 땅을 떠나 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던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절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멀지도 않은 때, 1989년도, 그



해, 해외유학 금지 제도가 해제되기 까지, 해외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고시에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오로지 '편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당시의 금옥씨는 국가고시에는 응시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유학 갈 길이 풀리기만을 기다렸었다.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언젠가는 동경하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녀가 해 나간 것은 가만히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형 영어 학원에서 비서로 근무하면서, 많은 외국인들과 교제하고, 또 닥치는 대로 영어를 공부하며 보냈다는 그 시간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그녀는 길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보다 오히려 길을 뚫어 나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했다. 그리고 그녀의 성실한 노력에, 그 길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쉽게 풀려 버리고 말았다.

영국은 축축한 나라예요, 정말로 깨지 않고, 잠만 자고 싶어지는... 그 친구들? 약간은 이해예요.

해외유학 금지 제도가 해제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해외로 유학을 떠나자,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다. "부유



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했을 그 친구들이 자기가 물 떠다 먹어야 되는 환경에서 생활하기가 쉬웠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영어로 의사 소통 할 수 있으면서, 물려다니면서 툭툭대고, 공부 안하고, 학위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친구들을 달래줄 만한 사람을 찾게 된 거죠" 현지의 골칫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작은 학교에서는 한국으로 도움을 요청해 왔고, 그 때 영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은 금옥씨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려 온 기회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금옥씨가 일을 하고 있던 그 영어 학원에는 해외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영어를 배워두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편이었고, 그들을 지도했던 외국인 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녀는 그들에게 공인된 성실성과 영어 실력

덕분에, 그들의 추천을 통해, 비교적 쉽게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1년 간의 장학금을 약속 받고, 문제 해결사로 임명되어, 1984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영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 때만 해도 모두들 미국이 파라이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에게 유럽에 대한 이유 모를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으로 가면 무언가가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에 많은 사람들이 젖어 있었을 때, 바로 그 때, 금옥씨는 영국으로 떠났



다. "유럽에 대한 동경이 어디에서 온 건지는 지금도 확실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눈에는 미국이 싸구려로 보였다는 점 이에요, 전통의 아름다움과 문화의 가치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림을 비롯한 각종 문화 산물, 예술 전 영역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그래서 영국을 택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꿈꿔 왔던 유럽에서의 생활이라지만 어디 말처럼 쉬웠겠는가? "떠나기 전에는 글씨 막 시험 보는 꿈까지 꿴가면서..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평소 깔끔한 성격에 음식도 가려먹는 그녀였기에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은 그야말로 태산 같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이라는,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인 리더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강한 자부심과 깊은 자기애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생각보다 심한 인종차별과 영어가 조금이라도 서투르면 바로 무시해 버리는 현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상처도 입었지만, 곧 'Korea'를 모르는 그곳의 어떤 사람들을 본인이 먼저 차별해 버렸다고, "낯 선 땅에서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아끼는 수밖에 없었어요, 품격 있는 농담으로 상대방을 테스트하기도 하면서, 사람 때

문에 시간 낭비하는 일 없도록 머리 좀 썼었죠.”

인생은 연극이에요, 그리고 그 때의 내 배역은 웨이트리스였죠.



“영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일했던 직장은 꽤 높은 월급에 휴가도 보장되는 곳이었어요. 영어 학원 이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70년대 미국식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던데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난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웨이트리스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찌겠어요? 그때는 그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영국에 도착하고 나서 근 육 개월 간 그녀는 해가 지기도 전에 기숙사로 돌아와 몸을 사리며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혀를 내 두를 정도의 강한 정신력과 높은 적응력으로 그녀는 곧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이용하기 시작했다.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이 난 교회 재단의 기숙사에서 머무르면서도, 1년 후, 더 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한 편,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공부했다고 한다. 책이나 교수의 강의를 통한 학습은 물론, 주어진 상황에서 얻어야 하는 작은 교훈 하나 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니, 주위 사람들이 놀랐을 만도하다. 영국에서 일자리를 얻기란 그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워낙에 덩치 좋고, 영어 잘하는 많은 현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작은 동양 여자에게 일자리 내어주기를 탐탁하게 생각하는 경영주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했고, 영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녀는 살길을 만들어 내었다.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 ‘저에게 이 식당의 메뉴를 보여주시면 이틀만에 몽땅 외워오겠습니다.’ 하고 겁도 없이 말해



버린 것.

그 맹랑함은 결국 그녀에게 웨이트리스 자리를 얻게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 식당의 메뉴는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식



어린 때부터 활달한 성격에 호기심도 강했던 그녀는 ‘책임지고 놀기’를 좋아했단다. 여기 저기를 뛰어다니며, 식물들 케 보기를 좋아했다던 그녀의 어린 시절 이

당 직원 전체를 통 털어 메뉴를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배인 단 한 사람뿐이었다. 일단 일자리를 얻고 나서, 그녀는 체면이고 뭐고 몽땅 어딘가에 버렸다고 했다. 그녀의 그러한 결정은 그녀를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하게 했고, 그 덕분에 그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임금을 떼어 먹는 사장들이 한 둘이 아니었던 그 시절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식당에서 일한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나..? 지배인도 아니고 매니저도 아닌, 일개 웨이트리스였던 나한테, 식당의 오후시간을 통째로 맡겨버리지 않겠어요? 그 때 생각했죠, 이번 배역을 내가 잘 소화해 냈구나.. 하고, 연극의 이번 파트는 나름대로 성공이구나 하고 말예요.”

난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문화를 음미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싶어요.

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녀가 오늘 날 ‘차 박물관’을 경영하게 된 것이 결코 ‘어찌다가’ 된 일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한 때는 선생님, 약사, 변호사, 등등 남들이 다들 한 번쯤 꿈꿔보는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기도 했다는 그녀는, 어느 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즈니스 우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단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벌써 어른이 다 된 양, 입학식에 어머니를 오시지 못하게 했던 전적이 있을 정도의 독립심을 가진 그녀, 그녀는 지금도 영국과 일본과 한국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했던 작은 사업인 Education consultant를 시작으로 작은 학교들을 위한 마케팅 사업, 골동품 구매 전시 업, 목걸이, 반지, 전시 판매 업, 라이터 사업, 등 무언가 반짝 생각이 스칠 때면, 절대로 그 아이디어를 그냥 흘려 보낸 일이 없던 그녀는 한국에 본점을 둔 차 박물관의 최고 경영자인 동시에 일본에서 역시 잘 나가고 있는 골동품 사업가였다. 바쁜 와중에도 여행을 다니기 좋아한다는 그녀는 다녀 본 곳이 참 많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대만... 잦은 해외 방문은 주로 사업상의 이유에서라는 질문에 그녀는 다 음과 같이 답했다. "여러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인 동시에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난 아직 멀었거든요, 다양성에 관한 느낌 정도를 알 듯 말 듯한 정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진 한방씩 찍는 것 말고, 진정으로 문화를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나라에 수 십 번씩도 가곤 해요, 그래도 볼 때마다 다른 걸요."

20대요? 그 어떤 때보다도 유혹이 강할 테지만, 결코 자존심과 Chance를 맛바꿔서는 안 되는 시기!



기사를 통해 금옥씨를 만나게 될 20대의 독자들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를 부탁하자, 그녀는 기다리고 있길래도 했다는 듯이 주옥같은 당부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빛만으로는 그림이 될 수 없잖아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유채색도 있고, 무채색도 있고.. 그래야 비로소 그림 한 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림 한 장이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 저것 전부 겪어 보고, 부딪혀 보고, 이 역할도 해 보고, 저 역할도 해 보고 그래야 더욱 풍요롭지 않겠어요?" 그녀는 이어서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리기로 마음을 먹 는 것'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아마, 어떤 때

보다 그 유혹이 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절대로! 자존심과 Chance를 맛바꿔서는 안 되는 시기, 그게 20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야망 없이 어떻게 뜨겁게 살 수 있겠느냐며, 눈 앞의 이익을 계산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말라는 당부 역시 잊지 않았던 그녀는 여전히 해 주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지만, 우선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여기 저기 벌여 놓은 사업으로 하루 24시간이 턱 없이 모자라지만,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야망 덕분에 오늘 역시 뜨거울 수 있는, Jade Kilburn, 최 금 옥 씨, 그녀는 진정 '자 한잔 할 줄 아는', '신나는'女子였다. ♣

by 유쾌한Girl

친인도...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 모임 "유쾌한Girl"은 고정 인터뷰 코너 (유쾌한Girl 신나는 女子를 만나다!)를 통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는 여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입니다. 유쾌한 Girl들이 만나는 사람들, 유쾌한Girl의 눈으로 바라 본 세상, 유쾌한Girl들이 유쾌하게 풀어내는 얘기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 헤드윅과 앵그리인치

이갈(사회과학계열99)



「지금부터 아이기를 떠나 하려고 한다.
TV에 나오는 저 유명한 가수가 바로 내 옛날
애인이라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아이기이지만
어쨌든 사실일지도, 세상 어디가에 존재하는
사람의 아이기인지도 모른다.」

HEDWIG
AND THE ANGRY INCH

성전환 수술에 실패하여 남성 성기의 6인치 중 (성난) 1인치를 갖게 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가 있었다. 원래 이름은 한셀이라던가... 뒷모습만 보고 멋진 여자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수술이 실패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한셀이라는 부담스러운 남자이름을 헤드윅으로 바꾸고 이제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수술이 실패해버린 것이다. 마취에서 깨어나보니 아직도 1인치가 남아있는 몸 oh my god!!

이제 '성난' 1인치를 가진 채 살아야 하는 헤드윅은 여성/남성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성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나중에 헤드윅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공교롭게

도 그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던 해에 태어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에 동독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동독인이었다.

자, 이제 헤드윅에게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운명이 주어졌다. 남성이나 여성이나는 경계 동이나 서나(냉정체제 하에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는 경계...tear me down이나 the origin of love 와 같은 곡의 가사에 그대로 드러나듯이, 영화는 이분법적 사고와 그와 같은 구분지움에 의해 생겨나는 억압과 소외를 함축하고 있다. 단지 그대가 이 사회의 주류 gender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계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는 것, 범주화하여 이 단가에 속하도록 만드는 것 그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이들/범주안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소외시키는 마련이다.

하지만 경계에 서있다는 말은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헤드윅은 노래로, 걸출한 말솜씨로, 더욱 짙은 화장으로, 관객을 휘어잡는 무대매너로 신나게 싸운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르는 일이다. the origin of love의 가사처럼 아주아주 오래 전에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인 그런 세 종류의 인간이 살았는지도,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들으면서 말할 수 있고 느끼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있는지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말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듯이 사랑의 기원 역시 증명할 수



없음이다. 그러니 한 번 물어봄이 어떨는지. 태초에 사랑은 그렇게 생겨났다고...

이만큼 보고 나니 헤드윅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드랙론으로 싸구려 술집을 전전하는 가난한 보컬의 슬픈 인생을 보여주려는 영화가 아니다. 헤드윅이라는 인물을 통해 투영되는 다양한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경계에 서 있는 그네들 삶의 슬픔과 기쁨, 유머와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영화이다. 누구에게나 삶이 복잡하듯이 이들의 삶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때론 재미있고 때론 화도 나고 울기도 하는, 고맙게도 헤드윅은 자신의 삶을 즐겁게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에 그는 가발을 벗고 남성의 모습으로 공연을 한다. 나는 그것을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안하고 복잡한, 견디기 힘든 무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것이리라. 헤드윅을 감싸고 있던 그 삶의 무게는 더 이상 그에게



「이런 바람을 한다. 영화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무식하여 용감한 편나누기를 잠시 잊어버리기로 한다. "저사람 여자야 남자야"..... 헤드윅의 삶을 같이 즐길 수 있다면, 이런 억압적 구별짓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만 지라고 하지 말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게도 남겨진 숙제이다.

물론 헤드윅은 완벽하게 올바른 인물도 아니요, 너무나 훌륭한 위인도 아니다. 그랬으면 이 영화는 지루한 위인전이 됐겠지. 때때로 여성주의자인 내가 보기에 거슬리는 장면도 있었고 (남성 감독이 바라보는 세상이 가지는 당연한 한계일지도 모르지만) 남성 성적 소수자의 시선에서는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생각 나서 아쉽기도 했다. 그래도... 신나는 걸 어찌랴~ 더 깊은 고민도 우리의 숙제로 남겨두자.

이런 바람을 한다. 영화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무식하여 용감한 편나누기를 잠시 잊어버리기로 한다. "저사람 여자야 남자야"와 같은 질문은 하

지 않기로 한다. 관람 매너 잠시 무시하고 옆사람과 같이 일어나서 춤추며 뛰어본다. 헤드윅의 삶을 같이 즐길 수 있다면, 이런 억압적 구별짓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혹 당신이 영화 헤드윅을 보고 한 순간이라도 발떡 일어나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싶었다면 당신 역시 나만큼이나 헤드윅이라는 영화에 푹 빠져버린 것일 게다. <헤드윅과 앵그리인치>의 무대를 보며 열광하던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화에 나온 전곡을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원앰프를 돌려가며 듣고 있다. 과장된 헤드윅의 "동글이 금발" 가발까지도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 이 영화, 맘에 드는데 한번 더 볼까? 이번에는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말이다. 물론 헤드윅 가발이 있다면 더 좋겠지~ ♪

제5회 가을 여성제

femi street

'네' 거리, 思 거리

1st street 여성제 개막식 - femi street 개통

9월 30일 (월) 12시 민주광장

2nd street 신나는 fenery 충전 - 강의실 밖 여성학

▶1 하루기할 -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 하는 비즈 공예

9월 30일 (월) 2시 학생회관 4층 학생회의실

▶2 사회 속에서 여성의 자리잡기

조선희(소설가, 전cine21 편집장)

9월 30일 (월) 7시 학생회관 푸른샘

▶3 성매매를 통해서 본 여성의 삶

새움터

10월 1일 (화) 7시 외솔관 110호

▶4 의학/과학에서의 여성 인식

하정욱(서울대 강사, 여성노동건강학회)

10월 1일 (화) 7시 외솔관 106호

▶5 여성의 몸에 좋은 요가

서경숙(국제종합요가협회주임강사)

10월 2일 (수) 4시 논지당

▶6 연애/동거 문화 속의 여남간 커뮤니케이션

나운경(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교수)

새움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비즈 만들기는 사전에 기획 교양을 실시한 사람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있으니 미리 참가 신청 바랍니다.

3rd street 여성, 영화路

슈팅라이크 벅, 인도식 팝콘

10월 4일 (금) 7시 위당관B09

4th street 여성 현실, 있는 그대路

연성루연, 교성루연, 알타리alterY, 여성자치단체들과 함께 여성제 내내 민주광장에서

'femi street' 여성제 기획단

www.freechal.com/womanfestival / 2123-3645

도쿄, 5개월, 그 어느날의 나

● 낯선 곳에서

이종숙
(경영학과 00 연재 일본 아오야마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중)

잠시 비켜있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였다. 일상의 굴레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많이 좋아하고 많이 싫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잠시동안만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나 자신이였다.

도쿄, 그리고 시부야.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지금도 나답게 걸어가고 있다. 마치 연세로를 걷다가 던킨에 들어서 창밖의 사람들을 구경하듯이, 익숙하게 도토루에 들어가 앉아있는 내 모습. 다른 것이 있다면,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정답게 1엔까지 계산하는 연인에게서 느껴지는 낯설음 뿐이다.

5개월, 지하철안에서 책을 읽는다. 나를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나 역시 이 공간이 익숙하다. 여기서 통화를 하면 무척이나 눈치보인다는 사실을 빼고는.

"여기서는 전철안에서는 휴대폰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방송하는데 한국은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하라고 방송한다면서?"

신기하다는 눈으로 질문하는 일본 친구. 사실 일본 전철안에서는 전파가 잘 안터지기도 하고, 500문자까지 전송할수 있는 메일이 15원정도라서 모두 메일보내기에 열중한다.

내려야 할 역, 책을 넣고 갈아타는 곳으로 간다. 노선이 몇십개인지, 매일 오가는 학교와 기숙사 노선을 제외하면 아직도 매일 헤맨다. 다행인



점이 있다면 거의 모든 역이 섬식 구조라서 방향을 잘못 잡아도 돈 낭비 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다.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정 거장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가야한다. 걸어서 10분정도 거리다. 1600원이다. 하지만 일일이 환율 따지고 들며 10배 붙이면 여기서 교통비는 정말 살인적으로 느껴진다. 160엔, 동전 몇 개를 넣고 다시 지하철을 탄다.

사실 도쿄에서도 최고의 물가를 자랑한다는 오모테산도를 오가면서도 나는 물가에 대한 차이는 별로 감지할 수가 없다. 런치타임이 되면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정말로, 오히려 신촌보다 합리적이다- 세일 기간이되면 어디나 30-70퍼센트의 세일을 경쟁적으로 실시한다. 디스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서 가격이 떨어진 물품도 많다. 결국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은 교통비와, 사람의 손.

“한국에선 맥도널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 받아?”

“글쎄한 200엔 정도?”

“그럼 햄버거는?”

“여기랑 가격 비슷해 한 50엔정도 팔거야.”

“그럼 한시간 일해두 햄버거 세트를 못먹는다는 이야기??”

일본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럼 왜일하니? 하는 눈. 일본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도 한시간에 800-1000엔 정도의 돈을 받는다. 다시 말해 햄버거세트를 먹고도 돈이 충분 한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고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매만져주는 사람에게 비싼 인건비를 지불 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인가. 적자를 호소하던 지하철과 시급 220엔에 온여름을 써서 일했던 팔빙수가제가 생각나면서, 한국에서의 돈의 가치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세미나 수업에 참석하러 간다. 교



수님 한분과 학생 10명정도의 세미나 그룹. 오늘은 세계각국의 여성지위 비교지수에 관한 자료가 놓여있다. 경제개발의 척도에 비해 여성의 위치는 어떠한가, 그런 지수인듯하다. 일본 92개국중 38위다.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다”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내 주위에 4명의 여자아이가 앉아있었는데 하나같이 남자가 부럽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남자는 월경도 없고, 출산의 고통도 없으면서,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중후한 맛이 배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일본은 남자에게 국방의 의무도 없고, 고교시절 모두가 꿈꾸는 ‘코시엔’이라는 야구경기-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듯한 고교별 토너먼트 시합-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남자뿐이라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동경을 가지고 있다. 역시나 나와는 환경과 생각이 다른 것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심히 눈으로 한국을 찾고있었던 나는 절로 얼굴이 빨개진다. 한국70위, 교수님도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유학 온 나에게 웅원의 말들을 전하고 있다. 고속 경제성장에 비해 조금도 자라지 않은 여성의 지위라니 열심히 지

켜볼 테니 더욱 노력하란다. 자료를 읽고 있던 나, 아직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짧은 일본어도 원망스럽다.

도쿄에서의 5개월, 반절의 시간을 보낸 지금 나는 내 생각처럼 한국에서의 생활에 비켜있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특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느끼기엔 충분했다. 남은 반은 그렇게 작은 내가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을테지.

맥도날드의 매캐한 담배연기는 싫지만, 최첨단 강의 시설은 부럽다. 문란한 밤문화는 싫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성관념은 부럽다. 그 어느 날의 내 생각, 잠깐의 생각이었다. ♪





여성주의자로 불리기 싫었던 어느 졸업생의 고백록

전주영(신방과 졸업자)

편하게 수다떨 듯 쓴 선배의 글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써주겠다고 했다가 '예구, 망했다.'라는 후회에 이내 휩싸였다. 어떤 식으로든 나의 대학생활 혹은 지금의 생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난 특별히 어떤 활동에 전념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업에 충실하지도 않았으며, 타의 모범이 될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이 글의 내용을 "이렇게 살면 요렇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채워 넣을 수도 없고... 생각할수록 난감한 글쓰기였다. 어차피 졸업해서 얼굴 모르는 후배들이 많으니까 적당히 교훈적인 말로 때울까하는 유혹도 잠시 들었으나, 그건 쓰는 것 자체가 재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 가지 밖에 없었다. 결코 교훈적이지도 모범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판, 혹은 비난의 여지까지 있는 나의 얘기를 하는 것 말이다. 서설이 길지만 나중에 도망칠 구멍을 마련하느라 그런 것이라는 이해를 구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자. 주제는 자의와는 상관없이 여성주의자로 간주되고야 말았던 불쌍한 중생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심적 고뇌를 겪었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 여성주의 별로 안좋아하는데..."

내가 학부 내내 주로 한 것은 학회활동이다. 1학년 때는 중앙 학회, 그 이후부터는 줄곧 과학회를 했었다. 여성운동의 경우는 모선회의 표현대로 가장 자리를 맴돌며 한 건에 발 한 쪽을 담



근 정도랄까. 원래 남성적 공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던 나로서는 여성운동에 쉽게 찬동할 수 없었을 뿐더러, 많은 이들이 적의를 표현하는 운동에 몸을 담으면 인간관계가 좁아질 거라 생각해 거리를 두려 했었다. 어차피 주변에 여성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서 식견을 넓히자는 계산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잔머리에도 불구하고, 과학회 사람들, 특히 동기들이 모조리 여성운동을 하는 바람에, 덩달아 여성주의자로 찍혀버렸다.

하지만 난 끈질기게도 여성운동집단에 속하지 않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했다. 이미 1학년 때 맺어놓은 인간관계 및 페미니즘에 이견을 다는 후배들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여성운동, 혹은 페미니즘은 편협하고 극단적이라는 공격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 공격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봐서 아니까 피하고만 싶었다. 그런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련의 사건들-성차별적, 혹은 성폭력적 언행에 대한 격론, 여러 성폭력 사건들 등-에서 나는 거의 대부분 여성주의자들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주의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난 동의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사실 실제 사건들에서는 워낙 말도 안되는 기본적인 것들로 시비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난 다시 여성운동하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렇게 바둥거리던 나도 3학년이 좀 지나서 어느덧 여성운동의 대부분에 동의하고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여성운동도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지만, 주변에 여성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횃수도 많았던 탓에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이 쌓였던 것이다. 물론 고민도 정말 많이 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복잡다단한 사건들 속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해, 주변부에 있으면서도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세상에 거저먹기란 없다.

한편, 그 즈음에는 여성주의자라는 낙인(?) 역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역시 드물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 보통 마초들은 사람 좋은 척을 잘 하기 때문에 한 번 알고 나서는 싫은 소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경우 사람 환장한다. 실제로 좋은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네들은 화를 내는 상대방을 성격 나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들 골 때리는 천사들은 "나 (성질 더러운) 페미니스트야."라고 하면 잘 접근하지 않는다. 낙인이란 게 일종의 모기향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

세상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지만, 그 사람을 알고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는 분명 중요한 문제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바쁜 대학 4년을 주변에 널린 마초들과 잘 지내기 위해 낭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닌 것이다. 물론 너무 착하거나 페미니즘 이외에선 대충 훌륭한 마초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래도 역시 그런 험기왕성한 시기에는 별로 추천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맘에 안드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언행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는 큰 반면, 얻는 소득은 별로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그네들 쪽에서 먼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다. 하지만 난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야 말았다.



"세상에는 설득의 씨알이 먹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으리라. 물론 설득은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일종의 사명감까지 느껴야 할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때 설득작업을 즐기기도 했었다. 그것은 많은 인내심을 요했지만 그 만큼 보람찬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의 느낌이란 정말 감동이다. 가끔씩은 계몽주의의 한계가 어찌니, 저찌니 해도 역시 인간에게 동등한 이성적 능력이 있어서 노력하면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페미니즘과 관련된 토론을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마치 상대방의 뇌에 일시장애가 생기거나 서로 바벨탑의 저주라도 받은 듯, 토론은 감정만 상한 채 끝나기 일쑤다. 어쩌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나의 논리가 허술해서? 아니면 나의 고민이 아직 수준미달

이라서? 아니다. 절대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정말 페미니즘에 통달해 있고, 논리력이나 말솜씨가 끝내주는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군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프로 앞에서 더 막나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일관하는 등의 모습을 쉽게 보인다. 심지어 평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자기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도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련의 반응들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나 역시 처음에 페미니즘이 불편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었으니 말이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는 불편함을 주는 대상을 멀리하거나 받아들이며 동화되는 것밖에 없다. 보통 전자를 선택하는 이들은 페미니즘, 혹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결함 때문에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후자를 선택하는 이들은 불편한 이유가 가부장적 사회에 길들여진 자신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이빨이 썩은 두 사람 중 한 쪽은 자기 앞에 있는 사과가 먹기 힘든 이유를 사과의 문제로 돌린다면, 다른 한 쪽은 이빨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자.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똑같이 설득의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난 당신들이 불편해, 그건 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어차피 현실에서 완전무결한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킬 '끼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한 마디로 그네들에게 설득의 '실' 자도 먹혀들지 않을 거란 얘기다.

물론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에서 문제를 찾기 쉽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문제로 무게의 추를 옮기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들을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른 운동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화는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가부장성에 대한 고민이 주내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모자란 판에 방어벽을 겹겹이 치고 창과 칼을 들이미는 사람들을 설

독한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감정만 상하고 인간관계만 망가진다. 상대방들도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여성주의자로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는 정치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되도록 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간 중간 거슬리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아예 안하고 살 수 있겠는가? 물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될 위험을 무릅쓰기 싫어 꼭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지하고픈 인간관계라면 기본적으로 당신의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어딘지 잘 알 수 있다.

결국 한 번 여성주의자는 영원한 여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서는 그렇게 볼 것이기에 굳이 숨긴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솔직한 게 최고다. 그런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관계결렬이 되겠지만 그건 당신 탓이 아니다. 관계를 쉽게 끊을 만큼 독하지 못한 당신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다. 섭섭하지만 안녕할 수밖에...
 여기까지 꽤나 많은 얘기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았지만 전체 요지는 한 가지다. 여성주의에 어떤 형태로든 몸을 담게 되었다면 당당하게 여성주의자로 살고, 그 선택에 대해서도 언제나 당당하라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로서 인간관계에서 상처 입을 일도 적진 않겠지만 그것이 두렵다고 자신의 생각을 접는 건 웃기지 않은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당당하게 사는 게 그리 만만치 않은 건 학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다. 혼자서 다른 생각을 말한다는 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해가 거듭된다고 해서 용기가 특별히 불어난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변명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순간들은 여전히 많고 그럴 때마다 나이의 개수가 부끄러울 뿐이다.

이런 요즘, 나처럼 깨닫는 게 느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픈 말은, 나머지 인간관계도 소중하겠지만, 당신과 같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별로 강하진 않아도 함께 있으면 서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니까 말이다.

이상, 여기서 주절주절 수다 끝.
 총총총... 4

7일간의 남도여행

_꼭지 / 노래 / 샘

7만원 여행기

8월 9일 금요일 저녁,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갔다. 대학친구 둘과 함께, 친구 중 한명네 집에 가는 길.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 어머니의 나이 어린 친구분 댁에 가는 길이었다. 거기서 하루를 묵고, 광주 일대를 여행한 뒤 제주도로 가는 일정의 시작이었다.

10시 넘어 도착했더니 친구 어머니와 친구 분이 함께 차로 마중을 나와 계셨다. 현재 독신으로 기독교회의 전도사로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 전도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도착한 아담한 아파트.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던 차, 단출하고 깔끔한 느낌이었다. 친구 어머니와 함께 과일도 대접해 주시고 이런저런 당부 말씀을 남기시곤 곧 어머니와

함께 친구 집으로 가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우리가 다 들어지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두 분이 다시 오셨다. 그리고 어느새 맛있는 아침을 똑딱. 이런 속 편한 여행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는 곧 친구분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기로 하였다. 순천에 있는 선암사에 갔다가 섬진강을 따라 하동까지 갔다 오자! 비가 오기에 걱정했으나 다행히 곧 멎었다. 곧 도착한 선암사는, 음,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으나, 이제껏 보아 온 다른 어느 절보다도 좋았다. 조용하고 아늑하고 지극히 자연적인 느낌. 만들어진 관광지의 느낌을 주는 어느 절과는 전혀 다른 자연스러움이었다. 여행은 목적지라기보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차만 몇 시간 달려서 찜 하듯이 다녀가는 일정으로라도 종종 들르고 싶어질 것 같은 곳이었다.

차에 남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전도사님께로 가는 길에 비가 내렸다.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가다보면 괜찮겠지 싶은 생각에 하동까지 가는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 물론, 전도사님이. -_-; 차 타고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며, 옆에 같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다가 졸다가 깨서 얘기하다가 졸다가 하는 것도 괜찮았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는 하동에 가도 별다르지 않겠다는 판단에 화개장터까지만 갔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기로 했다. 냉면을 시켜서 먹는 동안, 그 때까지 그저 신세집에 감사할 분이었던 전도사님과 비로소 대화다운 대화를 하게 되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전도사님 논문주제 얘기 등등..

돌아오는 길에는 비가 더 거셌다. 그럼에도 능숙한 운전솜씨에 감탄하며 전도사님 졸음운전 방지 차원에서 돌아가며 노래-_-도 부르고, 한결 편안했다. 나중에 말씀하시길,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빗길에 무척 미끄러웠다는 말씀에 잠시 흠칫했지만,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삶의 과정에 뛰어들 준비를 차차 해야겠는데,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겠다. 이번에 보고 온 삶은, 나만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대신, 친구의 딸의 친구들조차도 삶의 아주 잠깐이나마의 동반자로 여길 수 있는 열린 삶.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나로서는 어려운 유형의 삶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 속으로는 늘 바라마지않는 유형 중 하나다.

비가 좀 덜 왔으면 좋았을라나? 그랬으면 재미있는 구경도 많이 할 수 있었을라나? 뭐, 그랬겠지만, 이번엔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없었겠다. 빗속을 달리는 소형차 안에서 다른 세 명과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충분히 편안했고, 충분히 신선했으니.

노래의 이야기

고향이 제주도라 바다를 늘 가까이하며 살아왔던 나였지만, '배'라는 것은 유람선도 타보지 않았었기에 완도에서 제주까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무척 큰 일처럼 느껴졌었다. '고향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설레기 마련인데, 거기에는 '배를



없을 것 같은 바다, 그 한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다. 배가 지나가는 길따라 하얗게 피어오르는 포말을 보며 감상에 빠져있을 무렵, 멀리 구름 사이로 한라산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한라산을 바라보는 동안 배는 별

타고'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져 더욱 설레었고, 한편으로는 첫 승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조금 있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제주에 가려던 우리의 계획은 그다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출항 전날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과연 배가 뜰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던 와중에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계속 올 것이라는 말만을 반복했다. 광주-완도행 버스표와 완도-제주행 배표를 이미 다 샀던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리고 일정을 하루 늦추자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아주 우울한 밤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꼭지의 "오늘 배 뜬다"라는 말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날씨가 맑은 편은 아니었으나 비는 오지 않고 있었다. 전날 밤의 우울함은 싹 사라지고 들뜬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무사히 배에 올라탔다.

출발한지 한 시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우리는 객실에서 나와 바다를 구경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짙푸른 바다와 하늘뿐이었다. 가도가도 끝이

씨 제주항에 도착하였다. 여행 셋째 날은 그렇게 저물어 갔다.

그 다음 날은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라는 '우도(牛島)'를 가기로 했다. 날씨는 맑을 듯 했고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 남짓 갔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무리없이 재미있게 놀다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비가 쏟아지기더니 버스에서 내릴 때쯤에는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우도행 여객선 대합실에서 우리는 또 우물췌했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을... 용감하게 우도행 여객선으로 뛰어들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선실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비를 맞으며 이렇게 외쳤다. "비, 올 테면 와 봐!"

우도에 도착했을 때, 다행하게도 비는 멎었고, 걸어서 우도를 돌아보자는 제안에 무작정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낮게 쌓아올린, 발과 발의 경계인 돌담을 보고 무척이나 신기해했다. 제주에 살면서 워낙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이라 별 감흥이 없었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 모양이 제멋대로인 돌들을 쓰러지지 않



게 쌓아 만든 담이 자아내는 자연미가 새삼 느껴졌다.

시멘트로 포장되기는 하였으나, 길 양옆에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잡초들이 물기를 가득 머금은 채로 있었고, 밭에 매어져 있던 소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초록빛 자연과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파란색 하늘,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오랜만에 마셔보는 맑은 공기는 한없는 여유로움을 선사해 주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은 거의 걷혔고, 길을 걸던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탄성을 지르기도 하였다(그림자는 햇빛이 날 때 생긴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_-;;). 돌아오는 배를 타기 전, 등대에 앉아 햇볕에 살결이 그을리는 줄도 모르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맑게 개인 하늘과 푸른 바다를 보며 우도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만끽했다. ♣

#샘의 이야기

여행을 떠난지 다섯째 되는 날, 중문 해

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 하기로 한 날이다. 제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중문까지 가는 길은 해안도로가 아닌, 한라산을 통과하여 뚫린 고속화도로였는데 이 길은 물놀이에만 들떠 있던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왼쪽으로는 한라산이, 오른쪽으로는 넓게 펼쳐진 초원과 풀을 뜯어먹고 있는 말 몇 마리, 그리고 멀리로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풍덩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평온한 속에서 어떠한 고민, 어떠한 대립이 날 괴롭힐 수 있으리!' 끝이 없을것만 같은 푸르름의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는 중문에 도착했다.

탈의실이 마땅치 않아 해수욕장 근처 A급 호텔 '화장실'에서 서로 망을 봐주며 옷을 갈아입고, ^^; 우리는 마치 호텔 투숙객인양 유유히 그 곳을 빠져나와 바다로 뛰어들었다. 튜브를 끼고 아이가 된 듯한 기분으로 한참 물놀이를 하다 기운이 빠져-_-; 물 밖으로 나와 모래밭에 앉아보니, 정신 없이 노느라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새록새록 눈에 들어왔다. 비키니를 입고 화장을 하고 한껏 멋을 낸 여자들의 무리, 수영팬티만 입고 나름대로 멋을 부린 것 같은-_-; 남자들의 무리, 그리고 무리들. 그들을 주욱 지켜본 결과 특이했던 점은, 그들 모두 물 속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여자들은 보통 해변을 거닐었고, 남자들은 가끔 물 속에 잠시 들어가는 것 같긴 했지만 보통은 그냥 자리잡



고 앉아있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담 우리는? 반바지에 티셔츠, 머리부터 발까지 훌쩍 젖어 팔이랑 다리에 모래도 더덕더덕.. -_-;) 한 마디로 말하면, 수영복 입고 거니는 여자들과, 그들 앞을 지날 때마다 때때로 다른 그녀들을 쳐다보고 있는 남자들, 딱 이 상황인 것이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저들은 왜 재밌게 놀지 않지?', '저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있을까?', '저들은 지금 재밌을까?', '한여름의 해수욕장은 대상화의 천국이로군 -_-;' 하는 생각까지. 어렸을 때 이후로 피서철에는 처음 와 본 해수욕장이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바라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생각은, '여자친구끼리 휴가를 온 그녀들, 그녀들이 이 곳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화장이 다 지워져도, 머리가 헝클어져도, 모래가 좀 많이 묻더라도 다른 이들의 시선은 별 상관하지 말고, 죽치고 앉아서 쳐다보는 남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저 신나게, 자기들끼리 재밌게, 마음껏 즐길

수 있길 바랬다면 그건 괜한 걱정이었을까? 쓸쓸함을 뒤로한 채 해수욕장을 빠져나왔다. (그 다음 날과 마지막 날의 여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의 여행을 돌아본다. "여행떠나 보통 3일정도 지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약간 지겹기도 해서 집에 가고 싶어지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맘이 생기질 않으니 참 신기해." 자려고 불 끈 방에 섰이 나란히 누워 나누었던 얘기다. 여자친구들과의 첫 여행, 그것이 나에게 남겨준 것은 분명 편안함 그 이상인 것 같다. 누구 하나 분위기 띄워 크게 웃고 떠들지 않아도, 여행하는 내내 가슴속에 잔잔히 찰랑거리던 부드러움과 따스한 느낌들, 그로부터 비롯된 소소한 즐거움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과 공간을 채워 더할 수 없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안겨 주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느낌들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틈새 틈새에 온전히 스며들어 소박하면서도 더없이 큰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따사로운 빛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



피해자의 주장을 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다다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가끔 정말 이상한 애들을 볼 때가 있어. 아니 대체 어떻게 피해자의 주장만을 듣고 그 주장에 근거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모든 사건은 객관적인 진실이 있게 마련이고, 그 진실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에야 가려질 수 있는 거라구. 게다가 가해자가 꼭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에서 행한 행동을 피해자가 괜히 오버하거나 과잉으로 해석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불쌍하고 선량한 가해자는 대체 어떻게 하느냐 말야.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그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 막말로 1대 1로 일어난 사건에서 한쪽의 의견만 들으면 나머지 한쪽은 처음부

터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아, 생각을 좀 해 보라구. 내가 강도를 당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봐. 경찰이 내 말만 듣고 강도를 잡을 것 같아? 내가 도둑맞지 않았고 도둑을 맞았다고 신고했는지 아닌지 경찰이 어떻게 아난 말야. 내가 도둑맞지 않았는데도 도둑을 맞았다고 일부러 경찰서에까지 가서 신고하는 귀찮음을 무릅쓰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지. 내가 칠칠치 못하게 문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거짓말을 할지 안할지 경찰이 대체 어떻게 아냐구. 강도의 이야기를 들은 후가 아니면 내가 강도를 당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강도가 자기 입으로 내가 도둑질을 했소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해야 내가 도둑맞은 걸 믿어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라구. 증거? 증거가 있지 않냐구? 그 강도가 아주 용의주도한 놈이면 어떻게 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그머니 들어왔다 나간거면? 그래도 강도가 들었다는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냐 이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보이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딱지를 강도가 훔쳐갔다고 해 봐. 그 정도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고 사람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거지. 왜냐고? 원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에는 공감할 하기 힘든 법이거든. 내가 평생을 걸려서 모은 딱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다 이거야. 그래, 난 충분히 이해한다구. 아니면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나를 묶어놓고 협박을 해서 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생각해봐. 증거 있어? 아, 내가 폭행을 당했다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냐구. 내 몸에 멍이 들어있어? 내 몸에 맞거나 할퀴 자국이 있어?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눈에 보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냐 이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내 의견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증명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객관적

이기 위해서는 양방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거든. 그래서 강도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도둑질도 성립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게다가, 생각해 봐. 강도가 정말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면, 그때는 또 어떨꺼야? 강도가 우리 집 문단속이 잘 됐나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와 본거라면, 그때도 도둑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할꺼야? 내가 놀라건 말건 상관없지. 내가 충격을 받건 말건, 내가 괴로워하건 말건 상관없어. 왜냐고? 아, 그것도 몰라? 강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로 한 행동이잖아. 그걸 내가 꼬치꼬치 나에게 충격을 줬다고 캐고 들면,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지. 암, 아니고 말고, 세상에 정말 강도짓을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게 다 집주인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충격을 받았네, 상처를 입었네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강도짓이 되는 거라구. 강도가 선의를 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해준걸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하면 안되는 거야. ㄹ

군대에서 살아남기

독(인문학부98)

나는 감옥이 두려웠다.

감옥은 사회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곳이 아니던가. 강간범에, 조폭 행동대원에, 폭력범에, 강도에, 양아치에, 소매치기에, 사기꾼에, 유괴범에... 감옥은 도둑을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힌 온갖 '나쁜 사람'들로 가득찬 소굴이 아니던가. 비록 내가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할 만큼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개로 이런 곳에서 범죄자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두려움이었다.

감옥은 쉽게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곳을 경험해본 사람은 없거나 정말 극소수였다. 하지만 감옥은 죄를 짓지 않은 이상 감옥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문 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재현되었다. 여기서도 역시나 감옥은 정말 두려운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군대가 두려웠다.

영화에서 군인이 바닥에 머리 박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가면 저런 거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

습 삼아 집에서 따라 해봤는데 머리가 아파서 단 몇 초도 버틸 수 없었다. 이러다가 군대에서 시켰을 때 제대로 못하면 얻어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리고 성격이 내향적이고 남들 앞에 나서서 잘 못하는데 노래나 춤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자는 자리를 가려서 내방 아니면 제대로 잠도 못자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은 방에서 살지... 군대가면 이상한 거 시키는 고참도 있다는데 내 고참 중에 이런 사람 있어서 괴롭히면 어쩌지... 군대에서 겪을지 모를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2년 넘게 군대를 가면 지금 친구들과고는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는가... 보고싶은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군대는 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걱정들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계속해서 마음 한켠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이나 그 이상의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나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쏘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죽어 마땅한 나쁜 사람도 아닌데, 단지 명령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것인가... 이상하게도 군대와 관련해서 이러한 고민

이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군대는 정말 정말 이상하게 두려운 곳이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육군 사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훈련소에서 6주간의 기본 군사훈련과 정신 교육을 받으면서 군대란 곳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첫날에 너무나 어색한 느낌의 모포를 덮고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잠을 자면서 이게 군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입소할 때 입었던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군화를 신자마자 조교들은 별의별 이유로 온갖 욕을 하고 일처리를 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질서나 규칙이란 이름으로 몸에 대한 규율 - 줄 받듯 하게 서기, 걸을 때 자세, 절도 있는 경례, 큰 목소리, 각지게 말하는 양말과 팬티 - 이 이루어졌고 몸은 본능적으로 이것들을 습득해나갔다.

훈련소에선 그리 여유로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이전의 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나갔다. 몸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히 규율된 상태에 있었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군대는 옷, 머리모양, 행동, 언어 등을 획일적으로 통제했지만 정신만은 정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잃지 않으려고 일기나 편지를 쓰기도 하고, 군대에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

군대란 공간에 대한 무수한 얘기들을 통해서, 그곳이 나에게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점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란 고민 속에서 입대를 결정하면서 스스로에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보통 '군대가면 사람 된다'고 하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사람이 되고픈 생각은 없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피할 수 없



으면 즐거라'라고 강변하고 다녔고, 군대만큼 이 말에 적당한 곳은 없었지만, 나에게 군대는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는 곳이었다. 이유도 없이 후임병이란 이유로 괴롭히고, 별 잘못도 안했는데 욕하고, 때리는 것을 즐길 수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맞다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누군가를 때려야 한다는 것도 서글픈 일이었다.

... 말을 잊었다.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함께해온 내 '말'을 지켜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말을 잊는 것이었다. '내 몸은 당신들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 입에선 당신들이 요구하는 말이 나오겠지만, 내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2년 2개월 동안 변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기간동안 닥칠지 모를 일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말'을 거부함으로써 주변의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제대하고 네 달 정도가 지났다. 남들은 여섯이면 눈이 떠지고 간혹 기상나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고도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군복을 벗은 그 순간부터 그곳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요즘엔 힘겹게 그곳에서의 기억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전혀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왠지 이렇게 보내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복학생 예비역으로서 군대 얘길 하는게 그 수많은 '지겨운' 얘기들에 또 하나를 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식으로 군대에서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다.



〈기분좋은 충돌! 제14대 총여학생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싹둑!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를 소개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권력지반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선후배관계,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서 기인하는 권력의 차이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의 발생을 묵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억압 기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게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바로 교수성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명백하게 피해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부로 드러내지 못해왔습니다. 어처구니없지만 피해사실의 공개를 통한 배상 및 보상과, 여지껏 투자해온 학업의 포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갈등해야만 하는 것이 교수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전자를 택한다 하더라도, 서울대 신정후 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가해자와 남성중심적인 법원으로부터 받는 2차, 3차 가해들로 점철된,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과, 오랫동안 투쟁하고 고통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교수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이하 교성뿌연)”가 결성되었습니다. 고려대여학생위원회, 관악여성모임연대, 동국대총여학생회, 서강대여성위원회, 연세대총여학생회, 한국여성인우회, 서울산업대가 참여하고 있는 교성뿌연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동국대 K교수사건과 서강대 김교수사건, 그리고 산업대 K교수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수성폭력사례수집과 정리를 통한 백서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는 모임의 사적을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8월 20일에는 여태까지의 활동상황을 종합한 첫 번째 토론회 “그들의 얼굴에 파이를 던지려”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는 이제까지의 활동을 토대로 정리한 중간백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동국대 사건, 박사3학기의 피해자가 결국엔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도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서강대 사건, 그리고 성폭력 교수의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의 중징계를 내린 산업대 사건이 현재 교성뿌연이 함께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들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함께 힘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성뿌연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것을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 <http://bboba.wo.to> 이메일 : bboba2002@hotmail.com

●이길의 칼럼

우리보다 더 좋은 말은 있다!

김이정민(사회계열99)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오빠...

‘우리’ 사회는 ‘우리’라는 말에 무척 익숙하다. (이 문장에도 벌써 우리가 두 번이나 나온다)

영어로 *my mother, my family*라고 하지만 이것 한국어로 내 엄마, 내 식구라고 해석하면 뭔가 어색하다.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식구.... 나를 소유격으로 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우리’가 앞에 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나’가 ‘우리’가 되고 나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한국이 아니라)우리 나라가 서구보다 공동체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이라고, 인간미가 없는 개인주의 보다는 인정이 넘치는 한국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로 임혀진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인지, 나와 너를 하나로 묶어 주는 우리라는 단어가 요즘 광고에서 무척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전에 삼성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컨셉으로 “우리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라는 카피를 유행시켰다. 한빛은행은 아예 이름을 우리 은행으로 바꾸더니 우리나라 우리은행, 우리 카드 등으로 현재 ‘우리’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되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의 광고를 먼저 살펴보자. 삼성은 얼마 전부터 아예 '또 하나의 가족'을 메인 카피로 내세우며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광고 기법도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무척 정감 있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엄마..우리 아빠..우리 동생...우리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라는 나레이션을 깔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며, 가족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물론 나도 나의 가족을 좋아하며,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기도 하다. 하지만 가족은 언제나 행복해야하며, 그것이 늘상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지는 의문이다.

나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지만 내게 가족을 만들라하면 지금 내 가족과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와 모임을 함께 하는 친구들,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같이 영화를 만드는 언니...나에게는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화목해야 하고 잘 지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제대로 된/정상인 가족으로 인정받는 문화에 대해서도 나는 이견을 가진다.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공동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살던 나눔의 집 공동체를 우리 사회가 '올바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 은행의 광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희선과 이병헌을 모델로 내세운 우리 카드는 "우리 아버님..우리 어머님...우리 병현씨...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라며 우리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자고 말한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뭔가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희선의 소비는 그녀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의 물건을 사는 것으로 여기서의 '우리' 역시 가족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끼리만 우리, 급할 때만 우리

단순히 '우리'로 '묶이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보



다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부당한 억압을 두고 저항하는 이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 함께 무언가를 향유하고 즐기는 것...무척이나 멋진 일이며 어디에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라는 말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그 범주나 대상이 무척 애매한 말이라는 것이다.



보통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우리'라는 단어는 가족주의의 냄새가 짙게 배여 있고, 그 경계의 바깥에 서 있는 너희와 편을 가르는 '우리'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경상도가 못처야, 우리 식구가 최고... 이런 말들 말이다. 경상도가 못치면 다른 지역은 배제될 수 밖에 없고, 우리 가족이 최고면 그 기준에서 다른 이들은 남/너희/그들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광고들은 이 배타적 가족주의의 그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겠다는 은행에서 갑자기 나에게 '우리'라며 친한 척을 하니 어찌 반갑겠는가. 그저 '우리'라는 단어의 친밀한 이미지만 차용하여 급할 때만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데 말이다.

우리보다 더 좋은 말!

나는 개인적으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각각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동시에 서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관계망 말이다.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유로 묶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말만 좋은 이상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꿈 좀 크게 꾀보는 게 머 그리 나쁜 일일까 싶다.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우리, 너희와 우리로 편을 나누지 않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좋은 말을 생각해본다. ♣

당/연/지/思

당신은 연고제를 지금, 고민합니까?

안녕하세요 알타리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건네는 인사^^ 반갑습니다. 알타리는 보다 나은 연고제를 위해 고민하는 연세인의 모임입니다. 대안이라는 의미의 alter 에 연세의 첫 글자인 y를 덧붙여 만든 알타리예요. 9월 한 달 동안 당(신은) 연(고제들) 지금, 思(고민하고 있습니까?)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연세인과 함께 현재의 연고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연고제가 함의하고 있는 애초의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연고제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학벌주의에 근거한 엘리트 의식의 산물로서의 연고제의 존재의미, 연고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속의 나이키 티를 걸친 새관하고 잘 노는 남성 비장애인인 모습은 아마도 지금의 연고제를 가장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성중심적, 비장애인 중심적, 소비지향적 문화가 융축된 자리로서 연고제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짧은 치마를 입고 용원을 진행하는 치어리더들과 반어성적인 용원문화, 술자리 문화 등. 비장애인 중심의 대학문화는 역시나 미친가지여서 장애인들은 축제에 전혀 참가할 수 없는 구조. 연세는 하나라고 외치는 함성 속에서 견고해지는 집단주의적 정체성이 비장애인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서 옹호하고 다시 구성해 나가야 할 여러 가치들이 눈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시선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 다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논쟁과 소통을 통해 통합적인 정치적 실천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는 활동을, 알타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5월부터 고려대에서 anti연고제 고대 모임이 준비되었고 이와 발맞춰서 연세대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 실천들도 고대 모임과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활동 계획

노란 부적 배포

연고제 때에 정말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듣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듣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연고제 역점 막을 부적을 학우들의 바래고 함께 학내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채워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고제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의미로 옐로우 카드 주기 행사도 병행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막상 연고제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추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남기도록 합니다. 또한 각 과반과 단과대에서 연고제에 있었던 장애 차별적, 성차별적 상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고제가 끝나면 여러 동아리에서 그 간 연고제에서 멋있었던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듯, 여러 모니터링의 결과와 리얼 코리아를 방불케 하는 연고제 사진전을 총여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여성제 속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떡볶이 수다는 왜 떡볶이 수다지?

여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다닐때(혹은 초, 중딩때)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 "아줌마 많이 줘요"하면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먹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때 그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떡볶이수다를 만든다.

남학생들은 잘 이해 못할지 몰라도, 수다는 우리에게 생의 즐거움이었고, 우정의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호호호~~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며.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기분좋은 충동! - 제14대 총여학생회 -

cool-energy@hanmail.net / 전화 2123-3645(구내 3645)